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6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24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6. 22(금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김영만 과장(02-734-1864)	담 당 자	이윤진 사무관(02-734-1870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회기간 협상 개최
- 6.25(월)~29(금) 도쿄 -

□ "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" 회기간 수석대표 협상이 6. 25.(월) ~ 6. 29.(금)까지 도쿄에서 열린다.

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

○ 우리는 **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**로, **산업부 및 관계부처**를 포함하여 **약 40명**의 대표단이 참석한다.

□ 이번 회의는 작년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시('17. 11.) 제시한 '2018년 타결' 목표**달성 차원에서 핵심 쟁점 분야 협상을 한층 **가속화하기 위해 개최**했다.

○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참여국간 **상품·서비스 분야 양허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**하는 한편, **지재권·전자상거래·통관 작업반을 병행 개최해 규범 분야** 협상 진전방안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.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**은 **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**한 아세안·인도 등 **아태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**하고 있는 협상으로서,

○ **협상 타결**시, 우리 기업의 **교역·투자 기반 다변화**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**역내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에 크게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는 **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**에서 **상호 호혜적 성과 달성**을 위해 **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**하고, **우리 국익을 극대화**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(☎ 02-734-1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RCEP 협상 경과 및 의의**

1. 협상 경과

□ 2012. 11. 20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계기 **RCEP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 5월 협상개시 후 **22차례 공식협상** 및 **10차례 장관회의** 개최

□ 2017. 11. 14 RCEP 정상회의에서 **2018년 타결목표** 설정

2. RCEP 협상 의의

□ **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*을 차지**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·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RCEP 對세계비중: GDP 23.8조불(32%), 인구 35억명(50%), 교역 9.6조불(29%) ('16년 IMF)

□ 상대적으로 **경제성장률*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**** **미래 유망시장**

* '16년 성장률(IMF): 中 6.7% / 印 6.6% / 베트남 6.2% vs 美 1.6% / 유로존 1.7%

** 중위연령('17, UN): 인도 26.7세, ASEAN 29.2세 vs 한국 40.8세 일본 46.3세, 미국 37.6세

□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**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

◈ RCEP 체결시 **경제적 기대효과**('12, KIEP)
- **(실질 GDP)** 10년간 **1.21~1.76%** 증가, **(소비자 후생)** 10년간 **113.51~194.56억 달러** 증대

3. RCEP 타결 시 기대효과

□ **(상품)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**이 논의 중인 바, 이 경우 **한-아세안/인도**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**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** 가능

□ **(서비스) 한-아세안, 한-인도 등 기체결 FTA**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**추가개방 효과 발생** 예상

○ **(투자)** 한-아세안/한-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**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**으로 **기체결 FTA 개선 효과** 기대

□ **(원산지)** 기체결 FTA상의 복잡·다양한 **원산지 기준을 단순화, 통일된 기준을 적용***함으로써 **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* 제고**

* FTA 수출활용률('17)은 한-아세안 47.8%, 한-인도 67.5%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

* (예시) A품목의 경우 한-아세안/베/호 "RVC40 or CTH", 한-인 "CTSH+RVC35", 한-중 "CTH"이던 것을 RCEP에서 "RVC40 or CTH"로 단순화